

한형모 감독의 영화<자유부인>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

김혜정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ustoms in Han Hyungmo's film <Madame Freedom>

Kim Hyejeong

Prof.,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daily life of the Western-yearning Seoul citizens and the inflow of the Western culture into certain social classes. The customs of the characters in the film <Madame Freedom> are studied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deconstruction of Korean traditional clothes due to the Western influence. The combined application of the Western and Korean styles is also observed.

All this study leads to the sense of homogeneity of the times and the conformity to the culture the Korean women shared, which boils down to the social identity of the Korean women who sought an escape from the men-centered social structure by displaying their competence in the field of global modern fashion.

As Seonyeong Oh, the main character of the film, <Madame Freedom>, was wearing in the movie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socks, rubber shoes, and then a western-style coat, it well shows that in 1950's, the traditional dress and ornaments were mixed with Western styles. In time, men's wear were completely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Korean clothes to suits, while women's could not break off from the traditional clothes and become westernized, which indicates that the men-centered conservative ideas to keep women within the feudal regime of the society remained.

The military look of Seonyeong Oh while she was acting in the society was a symbol of anti-bias against women and anti-convention as well as the will of freedom as an independent woman.

Besides, the modern girls would wear clothes of military fashion, Dior's trapeze line, and knit styles flattering the figures. All these well show their desires to embrace Western cultures, especially their dress fashions as well as manners as so-called enlightened ladies.

All these elements show that the director was trying to represent the progress of the drama, characters, and psychological states by means of the dress and ornaments.

Key Words : Madame Freedom(자유부인), 1950's(1950년대), Modern Girl(모던걸), Dance(춤), Gye(계)

1. 서론

‘춤 바란난 교수 부인’이라는 소재로 4번에 걸쳐 재현된 영화<자유부인(1956)>은 1954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했던 정비석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다. 처음 제작되었을 때 1950년대는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영화의 주제가 대부분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나 홍보영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은 통속적 멜로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의 해체와 윤리의식의 와해로 당시 사회적 이슈를 낳은 <자유부인>은 사회상을 통해 세대를 풍자하고 가족의 해체 등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바도 있지만 여성이 방종하면 그 죄의식으로 인해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경계와 유교적 가치관의 강화라는 계몽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불미한 관계에서도 여성만이 방종으로 인한 자살시도와 남편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는 것을 볼 때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제도 속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당시 만연했던 남존여비 사상의 봉건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은 영화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 중반 영화제작 열풍에 힘입어 <춘향전>과 같은 사극장르의 영화의 전성시대에 통속극에 대한 관심이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상업적 측면에서는 현대극의 장르를 개척함과 동시에 통속극으로서 상업적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영화라 할 수 있다.

영화 <자유부인>은 1954년 초연된 이후 4번이나 영화로 재현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영화, 무용, 패

션쇼와 미디어아트가 혼합된 복합공연으로 재현되기도 하였다. 주인공 오영선은 패션쇼 기획자로 바뀌어 사회적으로 일부 성공하지만 여성으로 살아가기 힘든 현대여성들의 직장 내 고민, 결혼, 육아 같은 가정사와 개인사에서 아쉬움이 남는 일하는 여성들을 그리고 있다.¹⁾ 매체는 달라졌지만 시대를 달리하며 <자유부인>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사회적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에서 그려지고 있는 1950년대 전후시대 사회상에 비춰진 우리나라 여성의 정체성 및 복식의 고찰을 통해 주체적 여성으로 살고자했던 당시 여성의 삶과 문화적 수용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1950년대 한국영화의 특징 및 영화<자유부인>의 필모그래피를 통해 한형모 감독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화<자유부인> DVD에서 캡처한 사진을 토대로 해방과 전후의 혼란기를 거쳐 전후 복구기의 미국을 비롯한 서양문화와 문물을 동경하는 서울의 도시인들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 서구 문물의 유입현상 및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파악하고 영화<자유부인>에 보여진 캐릭터들의 복식을 통해 1950년대의 서양복식의 편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통 복식의 해체과정이자 서양복의 수용과정인 서양복과 한복과의 혼용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50년대의 한국과 서구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찰하여 195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한 패션 경향을 알아봄으로써 당대의 가치나 규범 및 취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새로운 문화나, 관습, 태도 등의 생활양식 및

가치체계의 수용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에 착용했던 복식을 통해 당시 여성들이 공유했던 시대적 동질성과 문화적 동조성 및 사회구조 속 정체성을 파악하고 현대패션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민감했던 적극적이며 주체적 여성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당시 여성이 단순히 성적 자유로 표상되는 서구문물과 문화의 유입에 추종하는 소비주의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전후 복구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양복식에 대한 적극적 수용으로 다양한 복식의 유형을 존재하게 하였으며 세계적 유행과 함께 하였음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당시의 취향문화 및 유행은 시대적 정서 및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1950년대 한국영화의 특징 및 영화<자유부인>의 필모그래피

1. 1950년대 한국영화의 특징

한국영화는 한국영화사적으로 보면 외국영화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와 영화관에서 첫 상연된 1903년 6월 이후로 활동사진기의 시기를 거쳐 무성영화시기와 발성영화시기를 통해 발달하였으며 그 후에도 일제 탄압기 및 해방기의 광복영화의 시기와 동란기에도 영화는 계속 제작되었다. 6·25 동란기에는 계몽물이나 반공물 이외에도 일반 흥행물도 제작, 상영되었으며 1953년 국산영화 면세조치에 의해 1960년대까지 다수의 영화가 제작되는 양적 팽창기를 거쳤다.²⁾

분단 전쟁기의 영화계는 시대적 상황으로 물자부족으로 인해 민간인에 의한 영화보다는 미군과 정부 주도적인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으며 물자부족으로 인해 35mm 표준필름보다는 16mm 영화제작이 성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1950년대의 영화 붐의 매개로 도시에는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대중문화가 범람하였다. 한국영화는 제작편수 면에서 외국

영화의 도입편수의 1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입체 영화’까지 내세운 미국영화에 밀린 한국영화 상영을 위해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를 제한하는 시위와 궤기 대회를 벌여야 했다.³⁾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는 한국 영화상영관에 흥수를 이루면서 영화 속에 표현된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상은 최고의 것이자 선진으로 가는 이상향을 꿈꾸게 하는 대리만족의 대상이었으며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 수입된 미국영화의 대부분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것으로, 당시 신문들은 이에 대해 ‘애정영화’, ‘저속한 작품’, ‘에로범람’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비판을 가하곤 했다.⁴⁾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환도와 함께 서울로 돌아온 영화인들은 국산영화에 대한 면세조치라는 정책에 힘입어 이규환 감독, 조미령과 이민의 <춘향전(1955)>은 국도극장에 개봉돼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한국영화의 중흥을 예고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는 곧 스타체제를 예고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⁵⁾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은 홍서기 감독의 <별아 내 가슴에 (1958)>, 최훈 감독의 <장마루촌의 이발사 (1959)>등 흥행작들이 말해주듯 통속극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 작품들은 자유풍조가 만연시킨 전후파라 하여 아프리카적⁶⁾ 애정편력과 가정윤리(<자유부인>) 또는 좌절을 딛고 일어난 참전상이 용사의 의지(<장마루 촌의 이발사>)를 담아 전후 사회상을 반영시켰다.⁷⁾

2. 영화 <자유부인>의 필모그래피

영화<자유부인>의 감독인 한형모는 1917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였으며 만주 신경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최인규 감독의 <집 없는 천사 (1941)> 미술부로 영화계에 데뷔하였다. 동 감독의 <태양의 아이들(1944)>로 촬영감독으로 데뷔하였으며 <성벽을 뚫고(1949)> 이후 18편의 영화를 연출하였으며 1999년에 타계하였다. 한형모 감독은 1957년 제2회 국제영화감독상, 1957년 제 7회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으며 1958년 <사랑하는 까닭에>로 제 6회 아시아 영화제 향토문화상과 1962년 <언니

는 말괄량이>로 제 1회 대중상 편집상을 수상하였다.⁸⁾

미술과 촬영기사로 출발한 한형모는 <사랑하는 까닭에(1958)> 등 공식적으로 연출과 촬영을 겸한 작품도 5편이며,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는 작품에서도 화면사이즈와 카메라의 움직임을 일일이 지시하였다. 대부분의 작품을 직접 편집했으며 영상의 구도 및 장면전환 등 극적 구성을 다채롭게 함으로써 할리우드식 영상을 연출하였다.⁹⁾

소설 '자유부인'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영화<자유부인>은 키스신이 논란이 되어 전후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영화 최초의 키스신은 이미 <운명의 손(1954)>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자유부인>은 교수부인과 대학생의 키스신과 포옹장면으로 상영 예정 전날까지 상영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일반 여론은 키스신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이었으나 국회 문교 분과위원들과 일부 가정부인이 맹렬히 반대하여 일부 장면을 삭제하여 개봉할 수 있었다.¹⁰⁾

영화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전후'라는 현실에 의해 생겨난 양공주, 전쟁미망인 아프레걸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사회문제와 사회상을 반영한다. '전후'라는 사회 맥락은 50년대 멜로드라마가 다른 시기의 한국 멜로드라마와 구별되는 지점으로 50년대 한국멜로드라마는 환타지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거울이자 동시에 사회상이 반영된 사회장(場)의 압축물이다.¹¹⁾

III. 영화 <자유부인>의 1950년대 사회·문화적 배경

1. 1950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

1) 1950년대 세계의 사회 문화적 배경

1950년대는 전쟁 후 미·소 대립을 축으로 한 냉전 체제, 극 세력을 증대한 자본주의국 진영과 사회주의국 진영과의 적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온갖 무기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사회적 분업화와 세분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여 경제발전과 자본의 축적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로 모

든 물자가 풍부해졌으며 소비자 중심주의 (consumerism) 사회가 도래하였다.¹²⁾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변화로 생활방식이 변화되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대중교육이 도입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위생 교육서비스가 개선된 대도시에 살게 되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 위생, 의료서비스, 교통, 전기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받았다.¹³⁾

1940년대가 전시의 몰자부족으로 인한 내핍의 시대였다면 이후 다가온 50년대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소비자 중심주의 사회의 원동력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있었다. 가정용 전자제품 예를 들면, 접시 닦는 기계, 텔레비전, 스테레오, 전축 등이 쏟아져 나왔고 자동차 산업은 큰 호황을 누렸다. 특히 1950년대 풍요의 대명사로 군림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었다.¹⁴⁾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의 국제무역회복과 대량소비 확산은 모든 선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성장을 고무시켰다. 처음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가용이나 텔레비전, 라디오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비행기 수수료가 절감되면서 미국적인 해외휴가가 가능해졌다.¹⁵⁾

특히 1950년대의 미국사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이전의 시대보다 성적으로 개방된 분위기였다. 1953년에는 휴 헤프터가 '마릴린 먼로'의 누드 사진을 실은 《플레이보이》를 창간하자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잡지발행부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700만 명이 넘는 독자를 확보하였다.¹⁶⁾

2) 1950년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1) 한국의 1950년대 문화 및 사회제도의 변화

식민지시대를 거쳐 해방은 일본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변혁적 노동자,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평등사상이 급속히 전파되었다. 평준화는 부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사회가 도래하였으며 그것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교육으로 인식되어 교육열을 일으

켰다. 또한 인구증가도 경쟁을 유발하였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베이비 붐이 일어나 출산율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열과 경쟁의식의 상승은 이농현상을 촉발하여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커져 산업화 없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다.¹⁷⁾

한국전쟁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추진된 한글 전용화정책에 더불어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극심한 인구이동 속에서 사람들과 문화와 언어, 습속 등이 뒤섞였고 양반 출신과 지주층을 대신하여 재벌과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재편성은 문치주의와 숭문사상을 약화시켰고 가족의 해체 내지 규제기능 약화현상이 일어나고 성윤리, 부정부패, 암거래와 종도독 등 도덕적 타락상이 대중에 노출되었으며 집합적, 정신적 가치 대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가치관이 널리 퍼졌다.¹⁸⁾

정부수립 후 1949년 12월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대학을 4년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2년제의 초급대학으로 다양화를 꾀한 이후로 1950년대부터 대학이 소수엘리트 양성기관으로부터 남녀차이를 넘어 능력을 가진 국민모두에게 개방되는 다수의 국민교육기관으로 변모하여갔다. 그 결과 여성교육은 근대화 및 민주화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와 재래의 남녀평등과 불평등의 인습을 타파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¹⁹⁾ 한편, 계, 품앗이, 두레 제사(동제오 조상제사)등 기존의 친족적, 혈연적 유대가 지역적 사회적 유대로 전환되었다.²⁰⁾

(2) 전쟁 후의 서구화 및 소비문화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미 군정기부터 시작된 자유주의(liberalism)의 문화가 싹을 튀었다. 미국문화의 특징인 개인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 개척정신, 평등주의의 사상과 생활양식이 팽배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미국적인 생활방식(american way of life)’은 언론과 영화를 통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1957년에 시작된 미군방송(AFKN)이 미국의 대중음악을 비롯한 미국문화를 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부부의 영어상용으로 경무대 안에서 영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으며 그 것이 영어를 보급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²¹⁾ 도시의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 사이에는 ‘미스와 ‘미스터’호

칭이 뿌리를 내렸다. 영화제목, 라디오프로그램 제목, 간판, 상품명, 유행가의 제목과 가사, 문학작품, 라디오프로그램 제목, 간판, 상품명, 유행가의 제목과 가사, 문학작품 제목 등에 영어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특히 영어식 상품명은 화장품, 설탕, 양복지, 치약 등 어느 분야에서든 미제(美製)를 선호하는 풍조를 반영하였다.²²⁾

전후 미국문화의 유입은 대중가요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우보이 영화가 인기를 끌었듯이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아리조나 카우보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이 주요대상이지만 이국풍경을 동경하는 노래가 많은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또한 주한 미 8군 캠프촌에서 노래하는 미국 팝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스타일의 가수도 등장했다. 기타타기 등 환락을 추구하는 퇴폐적 노래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즐겨 불려졌다. 대중가요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비참 등 동시대의 민족적 비극을 노래한 트롯이 부활하여 단장의 미아리고개, 굳세어라 금순아 등이 인기를 끌었다.²³⁾

그 외에도 한국일보 1956년 9월 9일자 신문기사에는 “댄스바람에 바람난 불륜의 처를 살해!”, “계에 실패한 여인음독자살!” 같은 기사가 매일같이 각 신문의 제 3면에 장식되었다.²⁴⁾

8·15 해방이후 신문·잡지의 발간이 증가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는 서울신문에서 여성 난 제작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잡지의 경우도 해방 후 50여종에 이르는 잡지가 연이어 창간됨으로써 잡지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여성지인 <여성계>(1953.12), <여원>(1954.10) 등이 창간되었다.²⁵⁾

또한 50년대 후반 종전 이후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인생활’ 등의 여성잡지 등이 수입되었고 50년대 중반부터 외국에서 수입한 총천연색 영화인 <분홍신>, <파리의 아메리카인> 등이 상영되었으며 1953년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미인의 조건은 얼굴뿐 아니라 체격도 잘 생겨야 한다는 뜻에서 8등신이란 말이 생겼으며 이 용어는 그 후 미인이 대명사로 사용되었다.²⁶⁾

수영복 차림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나 패션쇼, 여름이면 서울의 뚝섬유원지를 가득 메우곤 했던 수영

복차림의 여성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이었던 1959년의 교통안전여왕 선발대회조차도 수영복 심사를 하였다. 남녀가 마주보는 키스직전의 광고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광고, 그림이나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는 신문의 자극적인 외국영화 광고, 자유연애나 춤바람, 성적인 방조풍조, 수만 명의 유희녀들, 누드모델이 돈 잘 버는 새 직업으로 신문에 소개되고 카바레나 바 등이 밀집된 서울과 부산의 도시를 범죄와 타락의 장소로 간주하였다.²⁷⁾

(3) 여성의 지위변화 및 여성의 정체성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속해있던 여성의 지위는 한국전쟁 이후 변화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는 여전히 여성의 정조와 남성의 정조가 달리 인식되었으며 여성을 비하시키고 남성애를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식민지 시기 가정폭력을 비롯한 가족관계에서 행위의 주체는 주로 남편인 남성이었고, 그 대상자는 처 또는 첩이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행위의 주체가 처와 첩, 곧 여성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²⁸⁾

전쟁의 영향으로 1950년대 여성들은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많이 진출하였으며, 서구의 자유스러운 풍조가 급격하게 유입돼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따라서 돈과 물질적인 가치,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으며²⁹⁾ 당시 여성들을 문제시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글과 담론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또한 전쟁에 의한 전쟁미망인이 많이 생겨났고, 외국군의 주둔지 주변에 양공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³⁰⁾ 미망인은 가정을 경시하고 허영과 향락에 빠진 ‘자유부인’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규정은 여성은 항상 역사의 타자로서 주변인으로서 존재해왔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독립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¹⁾

반면에 1955년의 박인수 사건은 성문란의 대명사처럼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여대생 등 70여명의 여인을 농락한 혐의로 20대의 박인수가 구속된 이 사건은 판사가 “법은 정숙한 여인의 정조만을 보호한

다”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볼 때 당시 여성에 대한 남존여비사상을 엿볼 수 있다.³²⁾

1950년대는 미군 군정으로 인한 미국의 원조를 통해 유입된 미국문화가 한국에 정착되어가는 과정 및 전통사회구조의 붕괴와 법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사회제도의 변화와 문화구조의 변동이 많았던 시대였다. 그로인해 여성이 사회진출의 기회를 얻었을 수 있었던 반면 남성들은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미군정의 영향으로 신교육을 받은 여성을 당시 가부장적 남성의 폄하된 잣대로서 자유연애를 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가족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던 시대였다.

2. 1950년대 복식경향

1) 1950년대 서구복식경향

1950년대는 TV와 잡지가 화장품 광고시장을 선도해 나갔다. TV와 잡지에 등장한 화려한 모델은 사춘기 소녀의 또 다른 우상이 되었다.³³⁾ 영국의 테디보이(teddy boy)가 바지, 빅타이, 재킷을 입고 다녔다면 미국은 블루진과 흰색 티셔츠를 입은 캐주얼 스타일이 미국 십대들의 패션이었다. 미국 군인들이 착용했던 흰색티셔츠는 제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동안 군인들의 땀 흘리는 모습과 영광스러운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 거의 모든 광고에 군인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유럽 전역에서도 힘의 선망으로 다가갔다.³⁴⁾ 또한 캐주얼한 고급 기성복을 제작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여성복의 경우 바지 착용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1951년에는 리바이스사(Levi's 社)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켰다.³⁵⁾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의 오프 꾸뛰르는 디올의 라인 알파벳시대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기본적인 실루엣의 변화는 허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가는 허리 하이웨이스트, 로웨이스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는 허리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킨 무릎 바로아래까지 오는 길이의 섹드레스(sack dress)를 유행시켰다.³⁶⁾

1950년대 산업화의 촉진과 소비의 증가는 패션산업발달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한편 가부장적인 의식

이 팽배하여 순종적이며 모성애적 여성상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미화시켰으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시켜 관능적인 여성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³⁷⁾ 당시 여자구두는 앞부리가 뾰족해지고 뒤 굽의 힘이 가늘고 높아졌으며 모자는 작은 형태로 다양했으나 대부분 여성들은 장방형 스카프를 썼다.

1950년대 남성패션은 피에르 가르맹(pierre Cardin)에 의해 처음 소개된 어깨가 좁은 플란넬로 된 2~3버튼의 싱글 슈트가 유행³⁸⁾ 하였으며 남성복 생산시설의 기계화가 확산되었다. 남성복 생산시설의 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량소비에 대한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남성복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의 기성복 업체가 장악하였다.³⁹⁾

2) 1950년대 한국복식경향

한말 이후 양복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양복에 비추어 한복은 경제적이지 못하고 활동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었다. 1920년대부터 양복의 수요가 급증하여 양복점 경영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기 직종이 되었다. 양복의 착용은 대체로 남성에 한한 것이었고 여성에게 해당된 것은 아니었다. 남성이라고 전부 양복을 입었던 것은 아니었다. 회사, 은행, 관청, 학교에 다니는 사람 등 이른바 교육받은 엘리트층의 의복이었고, 1940년대까지도 일반화 되지 않았다.⁴⁰⁾ 그러나 해방은 입을 거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에서 유입되는 구호물자와 밀수품이 범람하면서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전쟁은 여성들의 일상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제 비로드치마에 일제 양단 저고리를 걸치는 것은 여성들의 최대소망이었으며 1954년 여름에는 ‘서울 거리를 휩쓰는 나일론 선풍’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⁴¹⁾ 합성 섬유, 대량보급과 양면기와 양말기 등의 국산화는 대중복 시대를 열었다.⁴²⁾

1950년 1월에 창간된 ‘부인경향(婦人京郷)’을 보면 “현재의 유행은 유명한 『디자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봄, 가을 씨-즌에 있어서 마치 전람회 갖듯이 의상 『디자인-』도 창조적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 발표회를 엽니다⁴³⁾”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의복에 대한 유행이나 예술적 감성에 대한 일

반인들의 큰 관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매력적 의복에 대한 욕구와는 달리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의복을 통제하려 하였다. 1955년에는 정부에서 복장간소화를 요망하여 춘·추 등에 국민복 착용하게 하는 등 신생활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서구문물의 접촉과 함께 물질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심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⁴⁴⁾

한편, 해외에서 귀국한 교포들의 영향으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밀리터리 룩의 테일러 슈트가 1945년 대전이후 즐겨 착용되었다. 그 후 드레시한 투피스, 원피스가 등장하고 이즈음 우리나라 여성들의 최고급품인 의복소재로 유풕, 혼방이 특수층에 입혀졌다.⁴⁵⁾

전쟁의 참화의 결과 하층계급의 패션은 미국의 구제품이 입혀지기도 하였다. 원조물자에 의한 미국 스타일, 미군과 교류하는 여성들이 도입하는 패션이 심심치 않게 유행을 만들었다. 1940년대 입혀졌던 길고 폭넓은 플레어스커트 대신에 1950년대 와서는 길이는 여전히 길었으나 폭이 좁은 스커트를 입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에는 타이트의 반동으로 다시 플레어가 부활하였으며 페티코트가 소개되어 여성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세탁과 뒤처리 손이 많이 가던 재래의 면섬유에서 탈피하여 비닐코트나 나일론 블라우스가 입혀지기 시작했다.⁴⁶⁾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을 위한 구제책들도 한국의 빠른 양장화를 촉발시켰다. 여성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생산구조인 의복, 수예, 편물, 미장원 등이 주로 기반이 되었다. 미망인들을 비롯한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여성들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사회참여는 복식업계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들은 독립적 사회관을 갖게 했다. 또한 1953년에는 국제 연합한국재건단(UNKRA)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재봉기, 편물기 등을 비치하여 미망인이 옷을 만들고 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⁷⁾

남성패션에도 큰 변화가 일어 양복이 귀하던 시대에 남성패션을 주도한 것은 마카오신사복이었다. 당시 양복의 옷감을 대부분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밀수

해온 것이었는데, 마카오에서 들어온 옷감으로 옷을 해 입는 사람들을 일컬어 ‘마카오 신사’라고 했다. 당시 마카오 신사는 첨단패션을 표현하는 멋쟁이라는 이미지로 통했다.⁴⁸⁾

IV. 영화 <자유부인>에 나타난 복식

1. 영화<자유부인>에 표현된 당시 사회상 및 그에 따른 여성의 정체성

1) 근대화 및 서양문물의 도입 및 대중의 소비 문화



<Figure 1> Upper class lifestyle in 1950s, Spectrum DVD Inc., 2005

이미 1920년대와 1930년대 경성의 일상은 일주일과 스물네 시간의 근대적 시간관념, 신문, 라디오와 축음기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 철도와 전차 등의 근대적 교통수단과 노동자와 자본가가 생겨났다. 또한 여인네들과 남정네들이 도시 상정가를 누볐다. 이들 중 경제력을 갖춘 소수는 고급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유행을 선도하였다.⁴⁹⁾

영화 속 장면으로 짐작해 볼 때 1950년대 일부계층은 비행기 및 여권으로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한 근대화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입자동차와 잘 닦인 거리, 다양한 외국문물의 수입,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밀수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의 플롯으로 등장시켜 전후라도 선진화되고 서구화된 당시 서울의 생활상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Figure 1>



<Figure 2> Craving for western civilization of Seon-Young Oh Spectrum DVD Inc., 2005

<자유부인>의 도발적 여성들은 도시를 거쳐 움직이고 댄스홀과 공연장을 출입하며 상품진열장을 바라보며 욕망을 시각화한다. 이 여인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응시를 통해 대중 소비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도시를 응시하는 시선과 그 속을 걷는 여성의 시선이 결합하여 그녀들은 주체로서 공간의 이미지와 동일시된다.⁵⁰⁾

이미 1930년대에는 백화점들의 손님끌기 정책으로 포목의 무료염색, 봉제 및 무료배송까지 이르렀으며⁵¹⁾ "모-단 녀성들, 녀학생들급이 꽤 많이 몰려서서" 있는 화장품과 양품점이었는데 모자란 돈을 쪼개고 쪼개어 화장품과 스타킹은 반드시 구입했다.⁵²⁾ 영화 속 1950년대는 성인 남녀가 사귀기 위해서는 ‘프레젠티(선물)’가 기본으로 수입 핸드백을 여성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추파를 던진다. 양품점(洋品店)에서 파는 것은 수입 서양제품으로 양품점이라는 최고급품을 일컫는 대명사로 여겨졌다. 코티분은 당시 여성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으며 그 외에도 향수,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대명사였다.<Figure 2>

2) 여가생활을 통해 본 복식의 다양화 및 여성의 정체성

(1) 댄스문화

“전쟁후의 여성의 경제 활동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은 여성을 향락과 허영에 빠지게 했다는 논리로 비약되

었다.⁵³⁾



<Figure 3> From **Ballerina look to Hanbok style in Dance Party**, Spectrum DVD Inc., 2005

영화 속 ‘화류회’라는 ‘계’모임에서 댄스파티에 간 장면으로, 당시 상류사회의 공간문화를 보여주는 댄스홀은 가정 내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일탈하여 하나의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춤은 긍정적인 사회 현상을 가져오기 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져와 ‘춤바람’이라는 용어의 탄생에 기여했다. 당시 댄스복으로는 홀터넥 드레스와 밀리터리 룩, 아우어글라스 원피스, 발레리나 룩에서 한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Figure 3> 그 외에도 양품점, 다방, 레스토랑, 호텔 안 등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일탈한 성인 남녀의 개인공간을 보여주어 대중들로 하여금 영화를 통해 대리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2) 계문화



<Figure 4> Scene of Gyemoim ‘Hwaryuhye’, and **band and dance**, Spectrum DVD Inc., 2005

“여자가 경제권을 가진 가정이 많아서 가정윤리가 틀려지고 여천화가 된 가정이 펍 많아진 것은 전쟁

이 빚어낸 부산물이라고 하겠다. 계 때문에 말썽이 많고 그 계 때문에 가정생활이 좋지 못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 같다.”⁵⁴⁾고 보았다. 당시의 전쟁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을 규제하여 집안에만 여성들을 가둬두고 싶어 하던 전통적 남성 편향적인 사고관은 계문화로 인해 여성이 타락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있다고 보았다.

서로 품앗이 하며 도와주는 고유한 의미의 ‘계’는 당시 서민의 유통자금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계’는 단순경제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문화’라는 양식으로서 ‘계’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상호 교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활성화된 계문화는 ‘계’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유행하는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교의 장이었다.<Figure 4> 또한 새로운 서양 문화를 향유하고 음미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였다.

3) 전통과 서구의 문화적 완충기로 본 여성의 정체성



<Figure 5> **Smoking modern women**, Spectrum DVD Inc., 2005

신문화를 접한 일하는 여성이나 최고위층 여성들에게 다리를 끈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모던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여겨졌다. 한복과 두루마기를 입은 채 담배를 피거나 당시 정장의 한 형태인 한복 위에 양장의 코트를 착용하지만 고무신에 버선을 신은 모습은 전통과 서구 문화가 서로 상충되는 현상과 함께 서양복을 적극 수용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Figure 5>

1920~30년대 신문과 잡지 등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생활개선 관련사항은 백의(白衣) 폐지와 색복 착

용이었다. 백의는 비효율적, 비경제적인 것으로 단죄되어 일제 측은 강하게 개입하여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과 자력갱생운동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색복 장려회 등을 별도 결성하여 색복착용은 계몽, 선전하였다.

1940년대 이광수는 영양학의 전문가였던 오역이 쓴 <생활진로(生活進路)>를 통해 생활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복장은 한복개량이 권장되어 어깨끈을 달아 개량하거나 허리로 내려 묶는 개선법, 내의를 아래위로 나누어 입는 방법 등이 고안되었으며⁵⁵⁾ 1950년대 와서는 한복의 개량화 이외에도 한복의 착용 형태의 변혁으로 치마,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 대신 서양식 코트가 입혀졌다.

1950년대 이전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의복의 개선운동이 주도되었다면 1950년대 전후에 와서는 전통과 서양복식의 혼용으로써, 전통과 새로운 문물인 이질적 문화를 순화시켜 자율적으로 적용해 나가려는 근현대 여성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외출 시 남성의 한복이 개량화 보다는 양복으로의 복식자체 착용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졌음에 반해 여성은 전통 한복이 쉽게 양장화 하지 못했던 것에 비춰 볼 때 당시 봉건적 사회제도 안에 처해있던 여성의 지위를 유추할 수 있다.

4) 모던여성의 활동으로 본 여성의 정체성

도시에서의 유행은 1955년의 헵번 스타일 등 머리모양 뿐 아니라 망보바지, 색드레스와 페티코트 등의 의복, 망보, 부기우기, 차차차 등의 춤, 그리고 LP 레코드의 보급으로 유행가요 망라되었으며⁵⁶⁾ 의류회사들이 주도하는 패션쇼 등장 패션복도 등장하였다.⁵⁷⁾

1950년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한글과 같은 지적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한결같이 서구화된 유행하는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당시 젊은 여성들은 1940년대부터 유행한 밀리터리 패션 뿐 아니라 디올의 트라페즈 라인과 여성의 몸매를 강조한 니트 스타일을 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유행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강의에서 실내이므로 코트를 손에 든 채 정중히 송별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단순히

의복을 모방하여 입는 모습이 아니라 서양의 매너를 갖추는 등 진정으로 그들의 문화 특히 복식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들의 욕구와 계몽된 여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Figure 6>



<Figure 6> Enlightened modern women's clothing etiquette, Spectrum DVD Inc., 2005

2. 플롯에 따른 캐릭터 별 복식

1) 교수 장태윤의 복식 스타일

(1) 가정에서의 교수 장태윤의 복식



<Figure 7> Professor Tea-Yoon Jang in home, Spectrum DVD Inc., 2005

젊은 모던여성과의 절제된 만남으로 여성의 정조 관념상실에 대한 반대 급부적 모습을 상징하는 교수 장태윤은 대사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가정을 벗어나 일을 선택한 여성은 매춘부적 소질이 농후”하며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은 가정 밖의 남성만을 위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지위향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라며 가정파괴의 주범”이라며 여성의 사

생활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양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타이피스트로 있는 젊은 여성과는 정신적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외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계몽시키고 지성인으로 사회진출을 시키고자 하는 계몽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 교수로 그려짐으로써 이중적 남성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교수의 모습은 변화하는 당시 사회·경제적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봉건적 사고에 갇혀있는 남성의 모습을 상징하고 전통가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여성을 의존적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유지를 희망하는 보수적 남성상을 보여주기 위해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집안에서도 저고리, 바지 이외에 상의에 마고자를 착용함으로써 규율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엄격하고 근엄한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Figure 7> 당시 근현대로 진입하면서 시작된 서구의 자유사상으로 전통사상의 한 뿌리인 가부장적 체제를 붕괴시킬 것을 두려워하는 남성들의 우려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거부를 보여주고 있다.

(2) 사회에서의 교수 장태윤의 복식



<Figure 8> Professor Tea-Yoon Jang in society
Spectrum DVD Inc., 2005

감독 한형모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는 오선영에게 벌을 주고 가정의 권위를 살려야하는 역할을 장교수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본인은 정신적 정조와 육체적 정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권위적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수 장태윤은 가정 안에서 무뚝뚝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마고자와 한복의 전통한복을 착용함

으로써 가부장적인 모습을 연출한 반면 대학에서는 수트를 착용하여 상대적으로 정반대의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신학문을 접한 인텔리전스한 캐릭터를 위해 안경을 착용하였을 뿐 아니라 수트와 베스트를 한 벌로 착용하고 있다. 베스트에는 시계줄을 연출하여 갖춰진 양복으로서의 의복예절을 보여주고 있다.<Figure 8>

당시 장년층의 외출시 남성복은 수트와 베스트, 버버리, 그리고 맥고모자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은 오선영과 불륜의 대상인 한사장의 차림새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서양문화와 전통문화의 충돌과 근대와 현대의 변혁기가 존재하는 사회적인 이중구조의 모습을 남성의 복식착용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수 장태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상반되는 복식의 착용은 남성들은 집안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복인 한복을 착용함으로써 가정에서는 군림하고자 하는 가부장적 의식과 외출시에는 서양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지식인과 부유층임을 과시하려는 이중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모던여성과 교류시에는 매너 좋은 남성으로 그려지기 위해 서양복을 착용하였음을 볼 때 당시 테일러 룩의 수트는 모던여성을 지지하는 모던남성의 표본스타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오선영의 복식 스타일

(1) 가정 내에서의 오선영의 복식



<Figure 9> Seon-Young Oh in home,
Spectrum DVD Inc., 2005

1930~40년대 시작된 일제 강점기의 일본제도권 및 우리 민족의 독자적 생활개선운동 등이 이미 있

었으나 1950년대의 가정에서는 근대화 되지 않은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화롯불의 사용과 추운겨울 밖에서의 빨래를 하는 등, 개선되지 못한 봉건적 생활과 근대화 되지 않은 모습은 복식에서도 볼 수 있다. 지고지순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오선영은 한복을 착용하고 봉건적 생활을 하고 있다.<Figure 9>

1930년대 이미 복장의 간단화를 위해서 치마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옷고름을 폐지하고 단추를 다는 방법이 자주 언급되었고, 복잡한 속옷을 간단하게 개량할 것도 주장되었다.⁵⁸⁾ 그러나 영화 속에서 한복은 단추나 브로치를 착용한 방법이 아니라 전통적 옷고름을 고수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여성이 위치하고 있었던 열악했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으며 옷고름으로 여민 한복은 봉건적 사회에 순응하는 당시의 보수성과 억압받는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한복과 양장이라는 극단적 양(兩) 복식의 착용은 당시의 서구와 고유문화의 대립이라는 혼란을 상징하고 있으며 가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당시 봉건적 사회분위기를 상징하고 있다.

(2) 일탈 시 오선영과 옆집 대학생 신춘호의 복식



<Figure 10> Deviated Seon-Young Oh, Spectrum DVD Inc., 2005

감독은 극의 전개를 복식으로써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수적이며 가정의 굴레 속의 오선영의 모습은 우리나라 전통의 한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옆집 대학생에게 춤을 배우게 되고 남편의 외도를 알아채고 화가 난 오선영이 춘호를 다시 찾는 시퀀스에는 오선영이 블라우스, 니트 카디건과 타이트 스킷트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고무신은 버리지 못하

고 계속적으로 착용하고 있음을 볼 때 ‘가정으로 부터의 일탈’과 ‘가정의 수호’라는 경계에 있는 오선영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Figure 10> 또한 옆집에 하숙하고 있는 춘호의 방을 찾아가기 위해 지나치는 담은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사회적 벽을 상징하고 그곳을 벗어나 춘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봉건적 체제의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려 했던 오선영을 상징하고 있다.

(3)사회에서의 오선영의 복식



<Figure 11> Seon-Young Oh in society, Spectrum DVD Inc., 2005

당시 1950년대를 살아가는 여성은 서구의 자유의 지라는 사상에 일찍 계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활동을 싫어하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선영의 밀리터리룩은 일과 가정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함으로써 신여성으로의 새로운 출발이자 바깥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선영의 밀리터리 룩은 근대적 이상에 대한 동경과 남성과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편견타파 및 독립적 여성으로서의 자유의 의지, 봉건적 굴레, 유교적 사회의 여성으로서의 인습타파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정적 불화와 일탈을 하게 하는 극의 발단이 된다.<Figure 11>

(4)불륜이 발각된 오선영

가정주부로서의 일탈을 그리고 있을 때는 서양복을 착용하고 불륜이 발각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는 한복을 착용하였다. 이 시퀀스에서는 서양복



<Figure 12> Abandoned Seon-Young Oh,
Spectrum DVD Inc., 2005

이 당시 여성들에게 가졌던 남성들의 불안감이나 부정적 시각을 상징한다면 한복은 방탕하게 생활하더라도 돌아올 곳은 오직 가정이며 가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남성 위주의 시각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불륜관계였던 양품점 사장인 한사장과 그의 아내에게 쫓겨 집에 돌아올 때는, 당시 일반적 차림이었던 두루마기나 서양식 코트의 차림이나 저고리와 치마만을 착용하고 외출을 하지 않았던 의례에서 벗어나 곁에 착용했던 서양식 코트의 착용 없이 한복만을 착용함으로써 가정 밖의 사회는 오직 여성으로 하여금 정조관념을 퇴색시킬 뿐이며 가정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만이 여성이 안주할 공간이라는 인식을 버려진 코트로 상징하고 있다. <Figure 12>

3) 옆집 대학생 신춘호의 복식 스타일



<Figure 13> Chunho's room and dating scene,
Spectrum DVD Inc., 2005

오선영의 가부장적 굴레에서 벗어나는 통로의 하인인 옆집 대학생의 방은 당시 여성들을 가정에서 벗어나 종속적인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서양문화와

문물을 상징하는 부정적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 서양의 신문물과 자유연애라는 서양문화를 앞장서 받아들이는 춘호는 집안에서는 니트나 체크셔츠와 같은 평상복에서부터 애인과의 데이트에서는 점퍼 룩, 댄스파티에서는 정장의 수트를 착용하는 등 T.P.O에 맞는 다양한 서양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그의 방의 축음기와 레코드 판, 라디오 위스키 등의 신진 물건을 통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당시 젊은이들의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젊은이들은 집에서는 축음기를 들으며 당시 서구문화 들어왔던 사교춤을 즐겼으며 교외로의 데이트에는 카메라는 필수 아이템이었다. 이는 축음기, 라디오, 카메라를 활용하는 능력이 당시의 세련된 남성상의 척도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춘호의 상대 데이트 여성인 오선영의 오빠의 부인인 명옥모는 사벨풍의 여성정장을 한 것에 반해 춘호는 점퍼와 니트모자의 비니와 머플러로 캐주얼한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남성은 자유로운 생활과 함께 사회 활동의 폭이 넓은데 반해 여성은 사회활동 및 생활의 폭이 한정되어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Figure 13>

V. 결론

본 연구는 영화 속에 나타난 복식을 통해 1950년대 여성들이 공유했던 시대적 동질성과 문화적 동조성 및 사회구조 속 여성이 처해있던 정체성을 파악하고 당시 남성 편향적인 정서에서 벗어나려했던 당시 여성의 정체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영화 <자유부인>에서 그려지고 있는 1950년대 한국은 전후라도 선진화되고 서구화된 서울의 생활상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의 '계'는 단순 경제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문화'라는 양식으로 계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상호 교류하였으며 그를 통해 댄스열풍을 일으켰다.

영화 <자유부인>의 주인공인 오선영이 착용한 의상을 보면 한복의 착용하거나 착용방법의 변혁으로 치마,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서양식 코트를 착용한 것을 볼 때 1950년대는 전통복과 서양

복이 혼재되어 문화적 완충기의 시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출 시의 성인남자의 의복이 서양복으로 변환된데 반해 여성의 차림새는 쉽게 양장화 하지 못했던 것에 비춰 볼 때 봉건적 사회제도 안에 여성을 묶어 두려는 당시 남성 위주의 보수주의적 습성이 잔존해 있음을 볼 수 있다.

1930년대 이미 복장의 간단화를 위해서 치마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옷고름을 폐지하고 단추를 다는 방법이 자주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선영이 착용한 치마는 여전히 길고 저고리의 옷고름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부장적 사회에 억압받던 당시 여성의 지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오선영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착용한 밀리터리룩은 여성의 남성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편견타파 및 독립적 여성으로서의 자유의 의지와 봉건적 굴레, 유교적 사회로 부터의 인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오선영의 남편 장교수가 가정 내에서 착용한 저고리, 바지와 마고자의 착용은 당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봉건적 사고에 갇혀있는 남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반해 서양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타이피스트로 있는 젊은 여성과는 정신적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외도를 하고 신학문을 접한 인텔리전스한 계몽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중인격적 캐릭터를 그려내는 데는 테일러 슈트에 베스트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오선영에게 춤을 교습하고 불륜관계에 있던 춘호는 집안에서는 니트나 체크셔츠 등의 평상복에서부터 애인과 데이트 시에는 정퍼 룩, 댄스파티에서는 정장의 슈트를 착용하는 등 T.P.O에 맞는 다양한 차림을 한 반면 데이트 시 상대 여성은 샤넬풍의 여성정장을 한 것으로 보아 당시 남성은 자유로운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에 맞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아이템이 풍부함에 비해 정장풍의 획일적인 여성복 스타일은 당시 여성의 생활의 폭이 한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모던여성들의 옷차림은 1940년대부터 유행한 밀리터리 패션 뿐 아니라 디올의 트라페즈 라인과 여성의 몸매를 강조한 니트 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김 교수의 마지막 강의에서 실내이므로 코트를

손에 든 채 정중히 송별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단순히 의복을 모방하여 입는데 그치지 않고 서양의 매너를 갖추는 등 진정으로 그들의 문화 특히 복식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당시 여성들의 욕구와 계몽의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댄스파티나 다방, 레스토랑 등에서 착용한 의상은 우리나라 전통 한복 뿐 만 아니라 홀터넥 드레스와 밀리터리 룩, 아우어글라스 원피스에서 발레리나 룩까지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하고 있어 복식에 있어서 혼란기이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남성들은 모던여성들은 유행, 사치, 성적 일탈을 하는 매춘부적 징후가 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향상은 남성들에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은 해방과 전후를 거치며 신식식으로 무장화 되었으며 당시 미국영화의 수입으로 접할 수 있었던 영화 속 서양의 생활상은 여성들로 하여금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을 벗어나 근현대적인 생활상을 꿈꾸게 하였다. 50년대 여성은 자유연애로 비롯한 가정적 일탈이라는 부정적 정의도 있었으나 유교적 사회제도의 인습타파를 하고자 했던 당시 여성들의 자유의지와 선진의식은 주체적 여성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복식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여성들은 단순히 복식 자체를 도입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들이 이상향으로 동경했던 서양문화에 대한 태도나 취향 등을 향유하고자 했던 적극적이며 능동적 여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영화에 표현된 복식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복식의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감독은 극의 전개 및 캐릭터의 성격 및 심리적 상태를 복식으로써 도식적으로 보여주어 영화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영화는 당시 유행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로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만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리 그려지고 있는 영화<자유부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복식을 통해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및 당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Reference

- 1) Sbs News, 2012. 3. 17.
- 2) An Byongsuk(1989), *Filmic reality, imaginary reality*, An, Byong-Suk Movie Critic(ed.), Je ogeumsa, pp.91-92,
- 3) Kang Inchul(2006), "The Korean War and the social consciousness and cultural change," *Modern re-read*, Yuksabipyungsa, pp. 408-409,
Kim Wonyong. Kim Kwangok, No Youngseo(1991), *Organized Theory of Korea Broadcasting*, Broadcasting Promotion Association(ed.), Overview of Korea Broadcasting, Nanam, pp.645-646, pp. 819-825 re-quotation.
- 4) Kang Inchul(2006), op.cit., p.409.
- 5) Kim Jongwon, Jeong Junghun(2001), *100 years of our film*, Hyunamsa, p.244.
- 6) apres-guerre is meaning Sexually free woman and called the après guerre generation Yeo Sunjeong(2001), "Beautiful and Wicked Woman's Period: Yanggongju and apres-guerre ", *Dictionary of Women Filmmakers*, Publication Sodo, p.29. re-quotation.
- 7) Kim Jongwon, Jeong Junghun(2001), op. cit., p.251.
- 8) Madame Freedom DVD (2005), Korean Film Archive, Spectrum DVD Inc.
- 9) Madame Freedom DVD (2005), op.cit.
- 10) Seo Jungseok(2009),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Woongjin Knowledge House, p.165.
- 11) Park Jinho(2003), "An Analysis of Korean Melodrama in 1950s ", The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 Multimedia and Film of Jung-Ang University, p.9.
- 12) Kim Jihee, Jeong Yoonhee, Whang yoon jeong(2006), *History of Makeup Culture in 20th-Century*, Kyungchunsa. p.134.
- 13) Christian, David(2009), *This fleeting world: a short history of humanity*, trans. Kim, Seo-Hyung, Kim, Young-Woo, Seoheamungip, 2009, p.176.
- 14) Jo Ohsoon et al.(2005), *View in Fashion and Beauty Story*, Kyungchunsa, p.164.
- 15) Christian, David(2009), op.cit. p.178
- 16) Kim Yoontea(2009), *World History for Sophisticate*, Cheakgwahamke, pp.80-81.
- 17) Seo Jungseok(2009), op.cit., pp.130-131.
- 18) Kang Inchul(2006), op.cit., p.355.
Kim Heungsoo, "A Study of Korean war's impact and the spread of this-worldly blessings in the christian churches", Seoul University, 1998, pp.24-28. re-quotation.
- 19) Cheon Sunjeong et al.(2002), *Beauty Aesthetics and Cultural History of Beauty*, Chunggumunhwasa, p.124.
- 20) Kang Inchul(2006), op.cit., p.417.
- 21) Kim Gwangdong et al.(2007), *Understanding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Kyungdukchulpansa, pp.118-119.
- 22) Kang Inchul(2006), op.cit., p.416.
- 23) Seo Jungseok(2009), op.cit., p.166.
- 24) Madame Freedom DVD (2005), op.cit.
- 25) Kim Heesook(2000), *Cultural History of Makeup of Korea and Western*, Chunggumunhwasa, p.49.
- 26) Ibid., pp.160-161.
- 27) Kang Inchul(2006), op.cit., pp.421-422.
- 28) Lee Imhwa(2006), "The Madness of the disturbance of women who flock to the court of adultery in 1950s",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life style*, Lee, Sang-Rok, Lee, Yoo-Jea(ed.), Cheakgwahamke, p.266.
- 29) Yeo Sunjeong(2001), op.cit., pp.28-29.
- 30) Park Jinho(2003), op.cit., pp.12-13.
- 31) Lee Imhwa(2006), "Korean War and Women", *Re-Reading Modern*, Yuksabipyungsa,

- pp.436-437.
- 32) Seo Jungseok(2009), op.cit., p.152.
- 33) Kim Heesook(2000), op.cit., p.106.
- 34) Chung Eunsook(2004), "A Study on the 1950s and 1960s T-Shirts Design's Influence of Actor's Image",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6), p.97.
- 35) Jo Ohsoon et al.(2005), op.cit., pp.131-132.
- 36) Ibid., p.131.
- 37) Cheon Sunjeong et al.(2002), op.cit., pp.182-183.
- 38) Kwak Hyungsim et. al(2004), *Cultural History of Beauty*, Kyungchunsa, p.250.
- 39) Chung Eunsook(2004), op.cit., p.95.
- 40) Kim Sohyung, Yum Hyejeong(2001)"Seoul transition of Clothing", *20th-century life in Seoul*; History of Culture Transition, p.298.
- So Hyunsook(2006), "Aspiring Modern and Colonial Life -aspect of movement of life improvement and gender politics in Japanese imperialism-",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lifestyle*, Lee Sangrok, Lee Yoojea(ed.), With Books, p.134. re-quotation.
- 41) Seo Jungseok(2009), op.cit., p.153.
- 42) Kang Inchul(2006), op.cit. p.414. *Association of Korean History Research*, How did we live over the past 100 years?, vol.1, p.165. re-quotation.
- 43) Past Reporters, Let Me Know! Handsome story, Sensuality and Sexy Fashion of the 1940s Liberation Period beyond Chanel, Dior!, Retrieved, 2012. 8. 2, From <http://mpva.tistory.com/658>, 2009/09/02 *Buin Kyunghyang, a first edition*, 1950.1. re-quotation.
- 44) Cheon Sunjeong et al.(2002), op.cit., pp.330-331.45) Ibid., pp.325-326.
- 46) Kwak Hyungsim et. al(2004), op.cit, p.104.
- 47) Lee Imhwa(2006), op.cit., pp.443-445.
- 48) Seo Jungseok(2009), op.cit., p.153.
- 49) Choi Byungteak, Ye Jisook(2009), *Report of Kyungsung*, Sigongsa, pp.4-5.
- 50) Kim Mehyun(2008), "The Experience of the Modernization -Walking through the Urban Space-", *Film Studies*, 36, p.50.
- 51) Choi Byungteak, Ye Jisook(2009), p.103.
- 52) Ibid., pp.106-107.
- 53) Lee Imhwa(2006), op.cit., pp.450-451,
- 54) Ibid., p.450.
- Lee Gunhyuk(1956), "Money, Family Life and Love", *Yuseonggye*, vol.4, pp.60-62,
- 55) Im Sookjea,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cross Three-Why don't You fix with This Way", *Sinyueseong*, 1925. 1.
- So Hyunsook(2006), op.cit, p.134. re-quotati on.
- 56) Kang Inchul(2006), op.cit., p.415.
- Lim Youngtea, *Korean History for 50 years*, Deulnyuk, pp.228-240. re-quotation.
- 57) Kang Inchul(2006), op.cit., p.415.
- 58) Bang Jeongwhan, "Gajeonggyemongpyun-Sa Inimsarideagumto", *Sinyueseong*, 1931, 4.
- So Hyunsook, op.cit., p.135. re- quotation.
-
- 접수일(2012년 11월 15일),
수정일(1차 : 2012년 12월 14일,
2차 : 2013년 1월 18일),
게재확정일(2013년 1월 28일)